

# 사회공헌활동, 기업만의 책임인가?

글 / 신 현 재 (엔지뱅크 대표)

**지** 난 55호에 실린 “진정한 기업이 정신이 만드는 건강한 사회”를 읽고 이 글을 쓴다. 글 내용을 보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요건의 하나인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연결시키고 있다.

필자는 대표적인 예로 에스티로더 화장품의 유방암캠페인과 한사랑 벤처릴레이를 들었다. 글을 읽으면서 현재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단상

우선 기업이 사회에 무엇으로 기여하는가에 대한 생각이다. 전통적인 시장경제체제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기업(특히 주식회사)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이다.

질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여 매출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도 이익을 돌리고, 이 순환 과정을 통해 생산된 부가가치는 다시 회사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정부의 세금 수익도 커지고,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도 윤택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바로 정직한 경영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내는 것이다.

회사에 출자한 주주들에게 회사가 이익추구에 힘쓰지 않고 비영리조직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회봉사에 노력한다는 것이 어떻게 비취질지 자못 궁금하다. 물론, 특별한 경우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으나 그것을 일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사회공헌활동은 개인과 정부의 몫?

특히 아직 걸음마 단계인 벤처기업이 사회공헌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

성설이라 생각한다. 자금지원을 통한 직접적인 사회공헌활동은 본질적으로 기업의 몫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과 정부의 몫인 것이다.

록펠러가 기부금을 내어 과학적 진보와 부의 재분배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록펠러 개인의 재산이지 회사의 공금이 아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회사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을 더욱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경영자 개인의 취향에 따라 사회봉사와 문화사업 등에 회사자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보다 성숙하고 건전한 사회는 회사가 최선의 노력으로 경영성과를 이루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개인적인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일일 것이다.

최근 어려운 경기 탓인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타워펠리스입주와 10억 만들기 등의 성공 스토리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 사회 구성원인 개인이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좇으면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하여금 사회공헌을 요구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자본주의는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부의 일부를 없는 자와 나누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도덕정신이 발휘될 때 그 꽃을 피우는 것이다.

## 벤처 자체가 건강한 사회의 필수요소

8월의 이 썩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많은 벤처기업인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줄 안다. 몇몇 기업은 큰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은 무척이나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바라기는 올해 하반기부터 매출과 이익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벤처가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으면 한다. 정도경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벤처는 그 존재 자체가 건강한 사회의 필수요소인 것이다.